

법원 “도박 당첨금, 소득세 내야”...실패 배팅액은? “공제 안돼”

도박사이트 수입 5년간 신고 안해 세무당국, 2년치 종합소득세 부과 1심 “기타소득에 해당...과세 정당”

도박으로 얻은 당첨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성공한 도박에서 얻은 당첨금과 지출 배팅금만을 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실패한 도박에 투입한 배팅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

다고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

다. A씨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며 신용카드로 게임 머니를 환전해 배팅했고, 지급받은 당첨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A씨가 도박 후 현금으로 환전해 2013년 벌어들인 1억여원, 2014년 벌어들인 1억300만여원 등 합계 2억300만원 상당의 수익액이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기

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2020년 1월 2년치 종합소득세 8300만여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나서야 과세가 이뤄져 부당하다고, 당첨금보다 더 많은 배팅금을 투입해 소득이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변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국제부과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기본법에 따라 국

세부과기간이 7년으로 연장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A씨가 이용한 도박사이트와 도박행위는 법률상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서 얻은 수입은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기타소득’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한 수천번의 도박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지출한 모든 배팅금을 기타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며 “당첨된 게임에 투입한 배팅금만을 공제해야 하고, 이렇게 산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이 사건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최이슬기자



신나는 분수터널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분수 터널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광주시, 장마철 앞두고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 나서

오늘부터 6월 말까지...안전대책 여부·수방장비 실태 등

광주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건설공사장 15곳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한 감전·익사,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장이다.

광주시는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대책 여부와 수방장비 확보, 관리 실태 ▲붕괴·추락위험요인 ▲배수로 정비와 비닐 막 설치 등 대책 강구 여부 ▲안전 관리계획서 적정성과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29일 “올해는 슈퍼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잦은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가 예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5년간 온열질환 노동자 152명...고용부, 폭염대비 집중점검

9월까지 건강보호 대책 추진...“물·그늘·휴식 반드시 지켜야”

고용노동부는 올해 6~7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노동자는 총 15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3명에 달했다. 특히 갈수록 폭염 시기가 빨라지면서 올해는 6월부터 30도 이상의 일시적인 이상고온 현상도 전망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업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에 예방대책 수립 지도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실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물·그늘·휴식’ 원칙을 반드시

수준해야 한다. 또 외부 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 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 온도를 낮추기 위해 주기적인 환기도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관련 조치가 적절하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 지원도 나설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